

김정은 체제의 대외개방 조치 평가와 전망

조 봉 현 / IBK경제연구소 정책팀장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지 3년차가 되어가고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처음에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김정일 시대와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했다. 정치·군사적으로 강경 노선을 통해 체제 결속과 대내외 과시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2013년 3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핵 병진 노선’을 채택하였다. 사실상의 경제를 중시하겠다는 정책 전환을 의미한다. 그만큼 김정은 체제에서 경제회생이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경제개선 조치(6. 28 방침)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외자유치를 위한 경제특구 개발에 적극적이다. 북한은 전국 각지에 14개 경제개발구를 새로 지정한다고 밝혔으며, 추가로 7개의 경제특구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4년은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경제정책에서 커다란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3년차에는 경제적 성과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외자유치를 위해 경제개발구 및 경제특구 중심으로 대외개방 행보를 적극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성공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북핵 문제와 북미·남북관계 상황 진전과 북한 내부적으로 제도와 인프라를 얼마나 잘 구축하느냐에 따라 달라 질 것이다.

북한의 대외개방 조치 내용 및 평가

김정은 체제 들어서 북한의 대표적인 대외 개방 조치는 경제개발구 추진이다. 경제개발구 조성은 지난 2012년 초에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시에 의해 추진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2013년 5월에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였다.

경제개발구법은 투자자들이 재산과 소득, 신변, 지적소유권 등의 보호를 받으며 토지는 북한 현행법상 최장 기간인 50년 동안 임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투자자들이 기업 경영에 필요한 물자 등을 반입할 때 관세를 면제하고 외화와 이윤, 재산도 자유롭게 외부로 송금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의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토지 선택의 우선권을 주고 사용료도 면제하는 특혜를 부여했다. 경제개발구마다 지역 관광자원을 개발하도록 하고 경제개발구 개발기업에 관광업과 호텔업 경영권을 취득할 때 우선권을 부여한 점도 주목된다.¹⁰⁾ 나선경제무역지대법과 비교하여 신변안전 조항이 강화¹¹⁾됐고, 개발당사자에 북한 기업소, 기관을 추가한 것이 특징적이다. 경제개발구내 토지, 건물의 재 임대를 허용한 것도 나선 법에는 없던 것이다.

북한은 경제개발구법 제정을 계기로 경제개발구 및 경제특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제개발구는 지방 맞춤형 소규모 공단으로 조성되며, 경제특구는 중앙급에서 추진하는 특구로 규모가 큰 편이다.

북한이 구상하는 경제개발구는 총 14개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북한이 도(道)마다 외자 유치에 위한 경제개발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북한 관계자를 인용해 평양발로 보도했다. 통신은 10월 16일 평양 양각도 국제호텔에서 열린 '특수 경제지대(경제특구) 개발 평양국제심포지엄'을 소개하면서 조선경제개발협회 책임자 윤영석의 발표 내용을 전했다¹²⁾. 김일성종합대 법대의 강정남 박사는 첫날 토론

10) 연합뉴스, 2013. 11. 13일자.

11) 나선경제무역지대법은 공민이었는데 경제개발구법은 개인을 북한법으로 보장.

12) "우리는 모든 도에 경제개발구 설치와 외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노동당 중앙전체회의에서 대외무역의 다원화·다양화 실현,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구 설치, 도마다 현지 실정에 맞는 경제개발구 설치를 결정했다"면서 "현재 각 도는 계획에 따라 개발구 설치 준비와 외자 유치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2013. 10. 17일자).

특 집

에서 “곳곳에 14개의 경제개발구들이 생겨났다”고 밝혔다¹³⁾.

14개 북한의 경제개발구는 지역별로 보면, 광역단위로는 북중 접경지역 5개, 동해지역 5개, 서해지역 4개로 되어 있다. 지역별로는 함경북도가 3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함경남도 2개, 황해북도 2개, 자강도 2개, 평안북도, 강원도, 량강도, 남포시, 개성시가 각각 1개로 되어 있다. 농업, 관광, 무역을 중시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14개 경제개발구〉

		지 역	주요 산업	투자액 (억달러)
북 중 접 경 지 구	압록강경제개발구	평안북도	현대농업, 관광휴양, 무역	2.4
	만포경제개발구	자강도	현대농업, 관광휴양, 무역	1.2
	위원공업개발구	자강도	광물자원가공, 목재가공, 기계설비제작, 농토산물가공	1.5
	온성심관광개발구	함경북도	골프장, 경마장 등 관광개발구	0.9
	해산경제개발구	양강도	수출가공, 현대농업, 관광휴양, 무역	1.0
서 해 지 구	송림수출가공구	황해북도	수출가공업, 창고·화물운송 등 물류업	0.8
	와우도수출가공구	남포시	수출 가공조립업, 보상무역, 주문가공	1.0
	개성고도과학기술개발구	개성시	첨단 과학기술 산업단지	3.0
동 해 지 구	신평관광개발구	황해북도	체육, 문화, 오락 등 현재 관광지구	1.4
	현동공업개발구	강원도	보세가공, 정보산업, 경공업, 관광기념품 생산, 광물자원	1.0
	흥남공업개발구	함경남도	보세가공, 화학제품, 건재, 기계설비제작	1.0
	북청농업개발구	함경남도	과수업, 과일종합가공, 축산업	1.0
	청진경제개발구	함경북도	금속가공, 기계제작, 건재, 전자제품, 경공업, 수출가공업	2.0
	어랑농업개발구	함경북도	농축산기지, 채종, 육종 등 농업과학연구개발단지	0.7

자료 : 북한 경제개발위원회 자료와 중국 등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정리한 것임.

주 : 개성고도과학기술개발구는 14개 경제개발구에 포함되는지는 최종 확인된 것은 아님.

압록강 경제개발구는 압록강 상에 있는 신의주시 룡운리와 어적리 일부 지역에 약 6.6km²를 조성할 계획이다. 총 2억 4천만 달러 투자하여 현대농업, 관광휴양, 무역을 기본으로 경제발전이 집약화된 경제개발구를 건설하고자 한다. 전기와 가스는 중국에서 끌어 오는 것으로 하고 있다.

13) 노동신문, 2013. 10. 23일자.

만포경제개발구는 만포시 미타리 및 포상리 일부 지역에 약 3km²를 조성하는데, 투자금액은 1억 2천만 달러이다. 현대농업, 관광휴양, 무역 중심의 개발구로 조성된다.

위원공업개발구는 1억 5천 달러 투자하여 위원군 덕암리 및 고성리 일부 지역에 3만km² 조성하는데, 광물자원가공, 목재가공, 기계설비제작업, 농토산물가공업을 기본으로 하고 잠업 및 담수양어과학연구기지를 결합한 공업 개발구이다. 인근에 화물부두를 건설하며 위원-만포사이에 철도 개설도 계획하고 있다.

온성심관광개발구는 온성읍 일대 약 1.7km² 면적에 9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숙박소와 휴식장소, 경마장, 골프장 등 오락시설을 비롯한 관광휴양지구로 개발하고자 한다. 전력과 가스 등 에너지 기지는 새로 건설할 예정이며, 우선적으로 중국에서 끌어 올 계획이다.

혜산경제개발구는 혜산시 신장리 일대 약 2km²를 조성하여 수출가공, 현대농업, 관광휴양, 무역 등이 집약된 경제개발구로 조성하고자 한다. 투자금액은 약 1억 달러이다. 개발구의 호수지역에는 관광 오락업을 결합한 국제봉사기지를 꾸미며, 구릉지대에는 피복, 방직, 호프가공, 아мага공 등 현대적인 경공업 생산기지를 조성하며, 양강도의 임업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임업기계제작기지 및 목재 가공기지도 건설한다. 양강도에 풍부한 지하자원¹⁴⁾등도 가공하여 수익성 높은 제품도 생산할 계획이다.

송림수출가공구는 송림시 서송리 일부 지역에 약 2km²를 조성하며, 투자금액은 8천만 달러이다. 수출가공업, 창고보관업, 화물운송업 등 수출 집약형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동통신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와우도수출가공구는 남포시 와우도 구역 일대에 1억 달러를 투자하여 약 1.5km² 조성하며 수출 지향형 가공 조립업 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남포항을 중심으로 한 금융, 관광, 부동산, 식료가공업을 결합한 종합적인 경제개발구로 건설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14) 동 5400만톤, 연 351만톤, 아연 390만톤, 수연 540만톤, 금 24만톤, 은 1100만톤, 자철광 3900만톤, 류화철 2700만톤, 마그네사이트 630만톤 등.

특 집

신평관광개발구는 황해북도 신평군 평화리 일대 8.1km²를 조성하며 투자금액은 약 1억 4천만 달러이다. 인근 명승지를 중심으로 유람과 휴양, 체육, 오락 등 다양한 관광을 할 수 있는 관광개발구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100KVA 능력의 자체 발전소와 광섬유케이블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마식령 스키장 등 원산과 연계하여 관광지대로 개발하고자 한다.

현동공업개발구는 강원도 원산시 현동리 일대 2km²를 개발하며, 투자액은 1억 달러이다. 원산항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정보산업, 경공업은 기본으로 하고 있다 특히 원산 지구를 세계적인 관광지구로 발전시키려는 국가전략에 맞게 관광기념품생산을 결합한 특징을 갖고 있다.

홍남공업개발구는 함경남도 함흥시 덕풍동 일대 2km²에다 약 1억 달러를 투자하여 보세가공, 화학제품, 건재, 기계설비 제작을 위주로 하는 공업개발구로 건설하고자 한다. 주변에 위치한 용성기계연합기업소, 2.8연합기업소, 홍남비료연합기업소 등과 설비 및 원자재, 생산 등에서 연계를 하고 있다.

북청농업구개발구는 함경남도 북청군 문동리, 부동리 등 일대에 약 3km²를 개발하며 투자액은 1억 달러이다. 주로 과수업과 과일종합가공업, 축산업을 기본으로 하는 고리형 순환생산체계가 확립된 현대 농업개발구로 개발하려는 것이다. 주변 지역의 약초와 고사리, 송이버섯등과 동해 수산물을 이용한 가공업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청진경제개발구는 함경북도 청진시 송평구역 일대 약 5.4km²에다 2억 달러 투자하여 금속가공, 기계제작, 건재생산, 전자제품, 경공업 제품상 및 중계수송을 연계한 무역을 결합한 경제개발구로 개발할 계획이다. 전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이동통신도 구축되어 있어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 곳이다. 남석리 지구에는 김책제철연합기선소 생산품을 이용한 2~3차 금속가공제품을 생산하는 기지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다른 개발구에 비해 기술 집약형 가공공업 비중을 높여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어랑 농업개발구는 함경북도 어랑군 통전리 일대 4km²에 7천만 달러 투자하여 농축산기지와 채종, 육종을 포함한 농업과학연구개발 등 현대적인 농업개발구를 건

설하는 것이다. 어랑비행장이 현대화되면 칠보산 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관광객들에게 농축산물과 과일 및 물고기 가공제품을 판매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개성고도과학기술개발구는 중국, 싱가포르 홍콩 등의 외국 기업과 합작해 조성하는 공단이다. 조선중앙통신은 2013. 10. 17일 외국 기업들로 구성된 국제컨소시엄⁶⁾이 '개성첨단기술개발구' 건설을 위해 합작하는 방안에 대해 북한의 유관기관들과 합의했으며 곧 이행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또 11월 11일 '개성고도과학기술개발구' 착공식이 개성시에서 열렸다고 전했다. 과학기술 중심의 경제개발로 육성하고자 하는 곳이다. 개발을 위해 평화경제개발그룹⁷⁾을 만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성공단 2~3단계 개발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남쪽에 대해 개성공단 추가 개발을 압박하고 향후 개성공단과 연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은 경제개발구와 병행하여 새로운 경제특구를 개발할 계획이다. 북한은 우선적으로 신의주 특구 개발을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2013. 11월 11일 신의주에 경제특구를 개발하기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발표됐다고 보도했다. 정령은 "평안북도 신의주시의 일부 지역에 특수경제지대를 내오기로 했다"며 "특수경제지대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이 행사된다"고 밝혀 대외개방을 염두에 둔 신의주 특구를 2002년에 이어 다시 개발할 것임을 시사했다.⁸⁾

신의주 경제특구는 2012년 북한이 홍콩 투자기업 '다중화 국제 그룹'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10년 만에 신의주특별행정구역 개발을 다시 시작하려는 것이다. 82km² 면적에 산업, 첨단기술, 금융, 무역, 관광 등 복합형 경제특구로 개발할 계획이다. 예상투자액은 1,000억 달러 이다. 新압록강 대교가 2014년 상반기 중에 완공되면 신의주 경제특구는 개발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황금평보다는 북한 지역 선점 차원에서 신의주 특구개발에 더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5) 싱가포르의 '주룽회사(Jurong Consultants)와 'OKP 부동산회사(OKP Holdings), 홍콩의 'P&T 건축 및 공정유한공사(P&T Architects & Engineers Ltd.) 등 동아시아와 중동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외국투자기업들은 개성고도과학기술개발구에 거점을 두고 북한내 인프라 건설(철도, 도로 등)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6) 개발그룹은 중국, 홍콩,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중동, 아프리카 기업들의 경제협력체"로서 최대 지분은 화교자본이다. 대표는 장수남이지만, 실질적인 자본을 투자한 대표는 허택승 총경리로 알려지고 있다.

17) 북한은 2002년 신의주시를 입법·사법·행정 자치권을 부여하는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초대 특구 행정장관인 네덜란드 화교 출신 양빈(楊斌)이 탈세 혐의로 중국 당국에 구속되면서 개발이 중단됐다.

특 집

아직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원산경제특구를 조성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에서 최우선 경제특구로 육성하고자 하는 곳이 마식령 스키장 건설 등 원산특구이다. 원산경제특구 단계별 개발계획은 해양 및 도시형 종합관광지로의 육성을 표방하는 원산시 일원을 비롯한 마식령 스키장, 울림폭포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발대상규모는 약 414.8km²에 이르며, 예상투자액은 총 78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북한은 원산지구와 금강산지구로 나누어 2단계로 개발할 계획이다. 1단계는 2013년~2017년까지 원산, 원산비행장, 울림폭포, 마식령 스키장을 개발하고, 2단계로 2018년~2025년까지 석왕사, 동정호, 시중호, 삼일포, 외금강, 내금강, 해금강까지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원산경제특구개발계획 대상지〉

대 상 지	육성대상산업	면적
원산지구(도시중심, 갈마반도)	해양 및 도시형 종합관광지	69km ²
마식령 스키장	녹색형 체육관광 리조트	22km ²
울림폭포	생태 관광지	10km ²
통천지구(읍,동정호,시중호)	호수 및 치료, 해안 관광지	88.5km ²
금강산지구(외금강,내금강,삼일포,해금강구역)	산악형 경치관광지	225.3km ²
총 면 적		414.8km ²

자료 : 북한 경제개발위원회.

강령 국제녹색시범기지 개발도 구상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개혁 개방시절 활동했던 중화권 투자 그룹을 끌어들여 황해남도 강령군에 무공해산업, 관광 등 국제녹색시범기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 강령국제녹색시범기지 조성 계획 〉

	주요 계획
농 업	은정차 재배 : 500정보, 녹색시범농장 :논 100정보, 온실 농업 : 1,300m ² 규모의 온실 8동 등
수산업	1,000정보의 연해지역에 해삼 및 전복 양식장 건설 : 10,000t의 해삼, 4,000t의 전복 생산
축 산	1,000t 규모의 돼지공장 3개, 500마리 이상의 고기용 소목장, 500마리의 젖소목장, 풀판 조성.

과 수	2,200정보의 우량품종 과수나무 재배
녹색식품가공	2,000t/년의 건조 과일 생산, 1,000t/년의 젓 가공품 생산
에너지	5만kw
해수욕장	10km 구간에 5,000명/일 능력의 해수욕장 건설.
골프장	200정보의 구릉지대에 전반주로 9개(4km), 후반주로 9개(4km)의 주로로 된 골프장 건설
호텔 및 봉사시설	5,000석의 능력을 가진 호텔, 편의봉사시설, 상업망건설
살림집건설	2만5,000세대의 살림집 개건보수, 2만세대의 살림집 새로 건설하여 현지 주민들과 노동력의 생활조건 보장

자료 : 북한 경제개발위원회.

이외도 북한은 남포, 해주, 온성 등에 경제 특구를 조성하며, 원산, 칠보산, 백두산 등 관광특구를 조성할 계획이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고 있다. 조만간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은 경제개발구를 위해 추진 조직을 구축 중이다. 장성택 국방위 부원장 주도로 당과 내각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은 경제특구를 개발하기 위해 "국가경제개발총국을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 하기로 결정했다"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발표했다. 또한 경제특구 개발을 위한 민간단체인 조선경제개발협회가 출범해 활동을 시작한 사실도 보도했다.¹⁸⁾

국가경제개발위원회¹⁹⁾는 2013년 5월29일로 제정한 "경제개발구법"에 따라 13개 특별 시·도와 220개 시·군·구에 경제개발구를 총괄 지도하는 새로운 경제지도기관으로 기존의 국가경제개발총국을 승격한 것이다. 합영투자위원회는 국가경제개발위원회 산하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 등으로부터의 외자유치는 합영투가 주도하고 있다. 합영투는 '10년 중국 상무부와 5년간 35억 달러 규모의 나선지구 부두와 도로 및 정유시설 합작개발과 무산광산의 시설 현대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북·중 경제 합작사업의 전면에 등장한 외자유치의 핵심기

18) 조선중앙통신, 2013. 10. 16일자.

19)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2013년 10월16일 정령에서는 "국가경제개발총국을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 하기로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에는 김기석 전 합영투자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임명하고, 부위원장에는 전 합영투자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철진을 임명하였다.

구이다. 내부조직으로는 모두 13개국이 있으며 1국은 내부 총괄, 2국 아시아, 3국 유럽, 4국 기타 국가, 5국 홍콩, 6국 나선특구, 7국 신의주·황금평 등 압록강 유역 담당하고 있다.

북한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발구와 경제특구가 현실적으로 성공 가능한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외자유치가 불가능하고, 과거 추진하거나 논의한 것을 다시 발표하는 수준에 불과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부정적 평가가 있다. 나선특구 및 황금평 개발도 아직 성과가 없는데, 또 다른 경제개발구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계획하고 있는 경제개발구는 과거와는 확연히 다르다. 물론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고, 투자 보장 장치 마련 등 여건이 형성되어야 하겠지만, 지방 현실에 맞게 소규모로 개발하는 등 현실성 있게 수립한 계획이다. 대규모 산업 특구가 아닌 농업, 관광 등 소규모 자본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14개 경제개발구 가운데 압록강경제개발구, 온성섬관광개발구 등 일부 개발구는 착수가 돼 어느 정도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북한의 대외 개방 전망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자유치를 위한 개방 정책노선은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가늠하기 쉽지 않다. 크게 3가지 시나리오별로 전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시나리오1은 북핵 문제 악화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내부적으로도 군부 강경파들의 파위가 세져 대외개방 조치가 후퇴할 경우이다. 북한의 대외 개방 추진은 중단되거나 과거로 회귀할 수가 있다.

시나리오2는 북핵 문제 악화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지만, 북한 내부적으로 대외 개방 조치를 계속 추진할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다양한 개방 조치를 시도 하지만 큰 진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선특구 및 황금평 개발 등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개방 노력은 계속 될 것이다.

시나리오3은 6자회담 개최 등 북핵 문제에서 진전이 있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도 다소 완화되며, 북한 내부적으로도 경제 부흥파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경우이다.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외자유치를 위한 대외 개방 정책들은 앞으로 본격화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에서도 개성공단 국제화, 금강산 관광 재개, 나진-하산 철도 운행 등 경제협력 중심으로 큰 진전이 기대된다.

지금 시점에서 볼 때 시나리오2로 진행되다가 2014년 하반기에 들어서면 시나리오1로 발전 할 가능성이 높다. 2014년은 김정은 정권 3년차이다. 경제적 성과를 보여주지 않으면 북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무너지게 되고, 결국 김정은 체제의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경제적 성과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부각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대내 개혁과 대외 개방 노선을 견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우선 14개 경제개발구와 마식령 스키장을 비롯한 원산관광 특구를 본격화하기 위한 외자유치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우리는 북한의 변화 흐름을 잘 파악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북한의 경제개발구·경제특구와 新남북경협을 연계하는 전략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끌어 내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가야 할 것이다. **統**